

실크로드를 가다

김영재 시인



두 번째 실크로드 여정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전해졌다 하여 비단길이라 부르는 실크로드. 중국 서안에서 시작되어 지중해 연안까지 연결된 이 길은 낭만적인 이름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대부분 이 길을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6,400km라니 놀라울 뿐입니다. 출발은 창대했으나 끝까지 뜻을 이룬 이들은 몇이나 됐으며 여행기간이 몇 달, 몇 년이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서안까지 이동하여 출발하는 실크로드 여정은 서안→천수→난주→돈황→유원→투루판→우르무치까지의 9일간이었습니다. 혜초 스님이 걸었던 길 그대로 따르는 실크로드 대장정이었습니다. 짧은 여행 동안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지만 놀라움 그 자체였고, 얹혀 있는 역사의 무게에 눌러 숨 쉬는 일도 버거웠습니다.

중국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안을 지나면 천수를 만납니다. 천수는 실크로드의 실질적인 첫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릿단을 거꾸로 쌓아놓은 것 같은 맥적산 석굴은 동방의 예술 보고라 합니다. 산

정상에 석굴을 파고 수도했던 수도승의 모습을 보겠다는 듯, 직벽에 설치된 계단이 관광객들로 위태롭게 북적댁니다. 첫 대면의 풍경들이 낮설고 경이롭습니다. 산안개가 피어오르는 맥적산을 뒤로하고 난주로 이동해 바다처럼 펼쳐진 황하의 유가협에서 보트를 타고 일만 부처를 석굴마다 모신 소적석산 병영사에 갔습니다. 흙으로 빚은 갖가지 형상의 부처들은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 마모되고 훼손됐습니다. 얼굴이 뭉개지기도 하고 목이 없거나 팔이 없는 등... 인간사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기차를 타고 돈황으로 출발합니다. 이층침대 객실에서 잠을 설치고, 중국의 50도가 넘는 백주를 마시며 밤새 달립니다. 다음날 아침 9시경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돈황은 타클라마칸 사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실크로드의 서역북도와 서역남도가 갈라지는 지점으로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막고굴이 있습니다. 불교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40~50℃가 넘나드는 땀별 아래서 수많은 관광객 무리에 섞여 이끌려 다닙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음 코스는 모래가 뿜뿜 운다는 명사산에 가서 낙타를 타고 모래산을 오를 테니까요. 사막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짜릿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쿠무타거 사막에서 일몰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맞춰 사막지프를 타고 모래 산을 달립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모래 산을 달려 정상에서 사막의 해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몸은 지치고 정신도 혼미하지만 그 순간은 황홀합니다. 사막에서 해가 지고 나면 별이 뚝뚝 빛납니다. 별뿔뿔이 길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찬란한 순간을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인간의 잡다한 번뇌, 욕심, 생애까지도 한 순간의 일이며

사막에 흩어져 바람에 쓸려 다니는 모래알 같은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자기 몸을 태워 인간에게 아름다운 생각을 지니게 하는 별뿔별.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사막을 떠난 이후에도 그 모습을 오래 간직합니다.

투루판에 도착했습니다. 투르크어로 ‘풍요로운 곳’이라는 이곳의 중심부 고도는 해수면보다 60m 낮으며, 가장 낮은 곳은 154m라고 합니다. 고온·건조·강풍으로 화주(火州, 불의 땅) 사주(沙州, 모래의 땅) 풍주(風州, 바람의 땅)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풍요로운 곳입니다. 투루판의 씨 없는 포도는 당도가 너무 높아 포도주를 제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서유기>의 무대인 화염산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뜨거운 화염산에 도착했습니다. 열기로 눈을 뜨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고산증세도 아닌데 머리가 멍합니다.

실크로드 1차 여행 목적지인 우르무치를 거쳐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년 후 다시 우르무치로 향했습니다. 죽음의 바다, 죽음의 땅 타클라마칸 사막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이라는 뜻의 타클라마칸은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 여름에는 지독한 더위로 유명합니다. 면적은 약 37만 km²로 남한 면적의 3배라는데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높이 100m 이상의 모래 산들이 강풍에 휘말려 이동합니다. 강한 바람이 모래를 날려 보내면 눈앞에 있었던 모래 산이 사라지고 저쪽에 생겨납니다. ‘사막이 움직인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막에 와서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막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막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히말라야를 10시간 이상 오를 때는 힘들지만 후회가 없었는데, 사막은 돌아가면서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2017년 7월 15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우르무치 → 쿠얼리 → 쿠차 → 호탄 → 사차 → 카스로 이어지

는 육로 1,400km의 대장정에서 5일째였습니다. 쿠차에서 호탄으로 이동하면서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날은 12시간 이상 종일 사막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은 오직 모래벌판입니다. 잠을 자다 깨어나도 모래밭이고 잠들어 있어도 모래였습니다. 그런데 드넓은 사막에 잎이 푸른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3~4m의 나무들은 군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막의 영웅나무’로 불리는 호양나무입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도 서서 천년, 드러누워서 썩지 않고 천년, 3천년을 견딘다는 호양나무가 사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양나무의 생존은 사막의 모래 유실을 막아주고,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아래 물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아 사막을 지키는 나무로 홍유와 백양나무도 있습니다. 방풍림으로 사막이 생명의 땅으로 존재하며 사람들의 생활을 유익하게 돕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법은 자연과 함께였습니다. 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와서 식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죽어 있는 땅이 아닌 살아 있는 땅으로 기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쿠차에서 신사막 공로를 타고 호탄까지 12시간을 체험한 타클라마칸. 실크로드를 건넌 수많은 상인도 이곳을 피해갔다 합니다. 대낮 기온은 40~50℃를 넘나들고, 일교차는 40℃, 평균 강수량 16mm입니다. ‘카리부란’이란 회오리돌풍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죽음의 사막’은 오랜 세월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기에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사막 특유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사막’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

※ 김영재 : 시인. 1949년 전남 승주 출생. 1974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히말라야 집꾼> <화답> <홍어> <겨울별사>, 여행 산문집 <외로우면 걸어라> 등 출간. 중앙시조대상, 이호우시조문학상, 고산문학대상, 가람문학대상 등 수상. 현재 출판사 ‘책만드는집’ 대표.

※ 본문의 갈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